

피의자 신문조서 복사 놓고警-辯 공방

변호사 “방어권 행사 필요”...경찰 “수사 방해” 불가

명확한 지침 없어 수사관 따라 허용 여부 오락가락

광주변호사회 제안에 대한변협, 대검·경찰청에 허용 촉구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사(복사)권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경찰과 변호사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죄 확정 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위한 필수적인 권리라는 주장(변호사)과 신문조서를 복사해 주변 수사는 어떻게 하느냐는 경찰 주장이 맞서고 있다. 광주 5개 경찰서의 경우 경찰 내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담당 수사관에 따라 신문조서 열람등사권 허용이 갈리고 있다는 변호사회의 주장도 나와 논란이다.

6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광주 5개 경찰서는 대체로 피의자 신문조서 등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살인, 절도, 강도, 사기의 죄를 범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를 상대로 경찰관이 신문한 내용의 조서(문서)를 피의자는 물론 변호인에게도 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 내용을 통째로 넘겨주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 절차를 거쳐 건넬 수도 있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공개 불가에 무게가 실린다는 설명이다.

반면 변호사회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은 물론 복사 허용이 당연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죄 확정 전 범죄를 저지른 의심을 받고 있는 피의자 단계에서 작성된 신문조서를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사에게

까지 복사를 제한한다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사 전문가인 경찰, 검찰과 달리 범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는 시민들은 법과 수사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신문조서 복사를 허용해 추후에도 변호사와 상의하는 등 본인 방어를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담당 수사관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등사권 인정 여부가 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회원 40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30여명의 회원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을 제대로 변호할 수 없고 수사관이 누구인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범죄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피의자들이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셈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노강규 회장은 “피의

자들은 장시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무슨 말을 진술한 줄도 모른다”면서 “유죄확정 전 피의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선 수사단계에서의 신문조서 열람 및 등사권이 경찰서나 수사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사는 공소 이후 진행되는 재판과정에서 인정되는 권리”라면서도 “수사관에 따라 신문조서 등사가 허용되고 있는지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변호사회는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본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 허용이 제한되고 경찰서별, 수사관별 차이가 있어 제도적으로 일관되게 인정해야 한다는 건의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고, 대한변협은 최근 이를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개통중지 휴대전화 때문에 ‘119 몸살’

유심 칩 없어도 긴급전화 가능 아이들 가지고 놀다 버튼 ‘쑹’ 전남소방본부 작년 2만건이나

유심(USIM) 칩 없는 개통중지 휴대전화 때문에 119 종합상황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개통중지 휴대전화는 대개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사용하는데 긴급전화인 119 등은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6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 119 종합상황실로 접수된 119 신고 43만여건 중 개통중지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는 2만여건에 달한다.

전화번호와 주소 정보가 없이 035-, 045-로 시작되는 번호로만 찍히는 개통중지 휴대전화로 걸려온 119신고 대부분은 아무 말 없이 끊겼다.

개통중지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119 등 긴급전화 가능인데 대부분 아이가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버튼을 잘못 눌러 119로 연결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전남도소방본부는 설명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개통중지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는 번호 식별이 불가능하고 상황실 직원이 이같은 전화를 받느라 피로도가 급증하는 등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개통중지 휴대전화로 119를 누르지 않도록 각 가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통중지 휴대전화로 긴급 신고를 할 경우 휴대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표절 보고서’로 표창 받고 승진 가점 비양심 교장·교감 등 10명 입건

표절 보고서로 표창 받고 승진가점을 받은 비양심 교장·교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남교총) 연구대회에서 우수작 표창을 받아 전국대회에 출품했다가 표절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승진가산점에 활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남 D초·H초·H초·D중학교 교장 등 7명(교장 4명, 교감 1명, 퇴직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표절 사실을 알고도 전남교총 회장 명의의 상을 수여한 전 전남교총 회장 문모(61)씨 등 교총 관계자 3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교장 등 교원 7명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전남교총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해 1·2등급 표창을 받은 연구보고서가 한국교총 주최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심사 과정에서 표절 판정을 받아 수상이 취소됐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등재

해 승진가산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원 승진심사는 경력점수, 근무성적, 연구실적평정 등으로 평가되는데 이 중 연구실적평정에 속하는 전국 규모 교원 연구대회는 1등급 1.5점, 2등급 1.25점(총)으로, 석사 취득 1.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D초교 교감 재직 시절 ‘새내기 교사의 교수 학습 능력 신장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로 한국교총 주최 대회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나 다른 교사의 보고서를 베낀 표절작으로 드러나 수상이 취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수상기록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했고 뒤늦게 삭제를 요청, 인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고의로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남교총 회장이었던 김씨는 표절이 불거지자 취임 10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사퇴했다.

전남도교육청과 한국교총의 조사 결과, 전남에서만 총 27명의 교원이 한국교총 대회에 표절작을 출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5·18묘지서 36주년 행사위 출범

제36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이 6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행사위는 ‘오일 광주, 기억을 잇다! 평화를 품다!’를 슬로건으로 이날 공식 활동에 들어갔으며, 정구선 상임위원장과 행사위원들이 참배를 위해 5·18묘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추가분담금 갈등’ 화정동 힐스테이트 오늘부터 정상 입주

先입주 뒤 금액 협의키로

경찰, 교통혼잡 대책 마련

3700세대 규모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가 7일 시작된다.

6일 광주시 서구 등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가 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재건축 형태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추가분담금을 둘러싸고 조합원간 마찰을 빚다가 조합 집행

부가 교체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다. 하지만 새로 꾸려진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 측이 입주를 우선한 뒤 추가분담금 규모를 협의하기로 하면서 정상 입주하게 됐다.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 물량로 3700여 세대로 입주가 끝나면 인구 1만명, 차량 5000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주변 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부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신호주기를 140초에서 160초로 늘리고, 주 간선도로에서 아파트로 유입되는 4

개 주요 교차로(화정역, 건강관리협회, 짚뽕터널, 미래주유소)는 신호주기를 2~7초 늘리기로 했다.

또 주변 도로에 고정식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이동단속, 시내버스 이동식 단속카메라 장착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재건축조합은 7일 오후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365억원 규모의 추가분담금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세대별로는 전용면적에 따라 860만~1550만원 가량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수~거문도 여객선 조국호 운항 재개 하루만에 또 결항

여수-거문도 항로에 임시로 투입한 여객선 ‘조국호’가 운항 재개 하루만에 또 다시 결항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거문도 항로 대체운항 여객선인 ‘조국호’가 선박 수리를 위해 6일 불가피하게 결항했다고 밝혔다. 조국호는 지난 4일 운항 중 기관 고장으로 회항해 수리를 마친 뒤 5일 오후 운항을 재개했다. 하지만 여수-거문도 항로를 한 차례 운항하고 나서 재정비 과정에서 기관의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리 중이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여성 혐오 발언’ 장동민, 한부모가정 아동 조롱 개그 또 논란

성다발

○...지난해 여성 혐오 발언과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 조롱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개그맨 장동민이 이번에는 한부모 가정 아동을 조롱하는 개그로 또 다시 논란을 자처.

○... 장동민은 지난 3일 방송된 tvN ‘코미디빅리그’의 ‘충청도의 힘’ 코너에서 ‘애들이야’ 7살 콘셉트로 출연, 새 장난감을 자랑하는 친구에게 “재네 아버지

가 양육비 보냈나보다” “부러워서 그라, 너는 바라 얼마나 좋아 선물을 양쪽에서 받았어 재테크여, 재테크”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잇따라 했다는 것.

○...앞선 논란 이후 자숙 기간도 없이 방송 활동을 이어가면서 “탈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던 장동민은 채 1년이 되지 않아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 물의를 빚으면서 또 다시 위기. /연합뉴스

커피숍 상가 4층 건물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1층 (커피숍 입점)

2층~3층 (고급 룸 8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

□ 월수익 → 50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만)

(※ 주인직매) 010-6670-9800 010-7384-7800

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

소액투자 가능, 3천만~2억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오피스 3천만 전영 출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빌 (별과 원룸) - 2층 (11평) 운전석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1억 1천만	□ 매가 3천 5백만 (전세로만 내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광산구 월계동 참다지구 1층 상가 - (40평) 1층 상가, 미용실, 식당, 프랜차이즈 추천 - 보증금 800만, 월 80만 (용 4천)
□ 매가 8천 500만	□ 매가 1억 5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 -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50평) 2층-전영 출음, 주변 골목상,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7천 500만	□ 매가 3천 5백만

010-6834-4800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특수물건 추천)	수익성 상가 (근린주택, 주택)
1. 북구 매곡동 (토 223평, 건 381평) (근린시설) ◆ 광주광역시교육청 인근 (아파트 상권 유동 많음) ◆ 매곡동 호반 2차 아파트 정문 인근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대출 50%가능 (실 투자 : 3억) 감정가 12억 - 최저가 12억	① 북구 중흥동 (토 72평, 건 36평) ※ 중흥3동주민센터 부근, 2~3m 포장도로 접감정가 1억3천8백 - 최저가 1억3천8백 ② 동구 신수동 (토 42평, 건 25평) ※ 토지 평당 150만원 단층주택, 다용도실 및 6평 별도있음 감정가 6천8백만 - 최저가 6천8백만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토지 추천)
① 북구 연제동 (토 84평, 건 155평) ※ 1층~2층 상가, 3층 주택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2천	① 광주 남구 주월동 (184평) (농지) ◆ 주월동 2차 현대아파트 부근 (차량접근 가능) ◆ 전원 주택지 추천, 식당, 마트 추천 감정가 2억5천8백 - 최저가 1억8천
② 동구 충장로 (토 34 평, 건 44평) (1층 식당, 2층 주택) 차선도로 접, 우의은행 광주지점 부근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② 서구 세하동 (198평) ◆ 세하마을 주변 위치, 주위는 주택 및 전답 한해 ◆ 2천 차량 접근 가능, 3m 포장도로 접 ◆ 별정 지상권 성립 감정가 1억9천8백 - 최저가 1억9천8백

경매교육
경매 이해는 대강화시!!!
바로실전 교육되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반)
주말반 (오전, 오후반)
경매본교육부터 실천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요스분
부동산 경매 관심 요스분
가족처럼 이해할분 환영합니다.

010-6832-9700